(제44권 41호)

오순절 후 열여덟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8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2년 10월 9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8 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통일 2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1 번 시편 97 편	찬양팀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Exodus) 16:1-20**	고지현 집사
찬	양 Anthem	"크신 사랑"	찬양대
설	교 Sermon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It Is the Bread the LORD Has Given You to Eat)**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주는 완전합니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620 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보다는,
끝없는 세상의 욕심에 이끌릴 때가 많았고,
허망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려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깊이 자리잡은 죄악된 욕망과, 헛된 기대와,
그릇된 교만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딤전 6:6)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 (개역개정 **출16:15**)

"When the Israelites saw it, they said to each other, 'What is it?' For they did not know what it was. Moses said to them, 'It is the bread the LORD has given you to eat.' " (NIV **Exodus 16:15**)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0/9 (주일)	10/10 (월)	10/11 (화)	10/12 (수)	10/13 (목)	10/14 (금)	10/15 (토)
본문	왕상12 빌3 겔42 시94	왕상13 빌4 겔43 시95,96	왕상14 골1 겔44 시97,98	왕상15 골2 겔45 시99-101	왕상16 골3 겔46 시102	왕상17 골4 겔47 시103	왕상18 살전1 겔48 시104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0/12수 오후7:30)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말씀에 관하여" (요일1:1-4)
토요 새벽기도회(10/15토 오전6:30)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시97:1-12)

지난 주일(10/2)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18)
"그들이 마라에 이르고 엘림에 이르니" (출 15:22-27)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었는데, 사흘이 되도록 그들은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해와 애굽 군대의 위험 만큼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실질적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때에, 드디어 그들 앞에 물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염분이나 석회질이 많아서 였는지, 누구도 쉽게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의 이름을 "쓰다" 또는 "비통하다"는 뜻의 "마라"로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통과하여 열두 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엘림'에 이르게 되었지만, '마라'의 쓴물은 그들 안에 있었던 쓴 뿌리를 그대로 다 드러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마라'와 '엘림'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적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1)첫째, 우리 삶에는 항상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다는 사실이고, 2)둘째, (비록) 우리가 "마라"에 머물게 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며, 3)셋째, (아무리) "엘림"에서의 시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락해도, "엘림"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건은 '엘림'에서가 아니라, '마라'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마라'와도 같고, (때로는) '엘림'과도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신앙의 신비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